

“4대강 파괴행위 중단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정진한다”

재가불자 1만6917명 ‘생명평화 선언’

“금일로부터 문수스님의 유지를 새겨, 4대강에서 반생명적 파괴행위가 중단되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평화와 을 때까지 불퇴전의 자세로 정진해 나갈 것임을 지방세계에 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8일 문수스님 추모와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 강행에 반대하며 조계종 스님 5000여 명이 생명평화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재가 불자들도 4대강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는 지난 14일 오후2시 서울 조계사 내 문수스님 분향소 앞에서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4대강 개

발반대 재가불자 1만인 생명평화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가불자 선언에는 서울 금선사, 법장사, 봉은사, 화계사 등 사찰을 비롯해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정도회,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 사회, 신행 단체에서 1만6917명이 동참했다.

이날 발표된 재가불자 1만인 생명평화 선언은 지난 4월 불교연대를 중심으로 문수스님 소신공양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재가불자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됐다. 조계종 스님들의 생명평화 선언에 이어 재가불자들까지 대규모로 문수스님 추모와 4대강 사업

반대에 동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불교연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생명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에는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유정길 예교재단 공동대표, 박경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단체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수스님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자들은 생명평화 선언을 발표하고 문수스님 유지 계승과 4대강 사업 중단에 불자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표자들은 생명평화 선언을 통해 “우리 불교도들은 이제 우리 안의 무지와 무관심, 무능력부터 떨치고 일어서 생명과 평화를 살리는 대장정에 망설임 없이 나서 우리 어깨에 죽비를 내려친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 화답하고자 한다”면서 “금일부터 생명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4대강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돌보는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자비무적의 정신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생명파괴를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특정 구간 한 곳을 시범 지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영향을 평가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특정구간 시범 지정…사업집행 후 평가 통해 확산여부 결정” 제안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조계사 내 문수스님 분향소 앞에서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4대강 개발반대 재가불자 1만인 생명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종단교육 이수 인정

연수 인증기관 모집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설 연수교육을 앞두고 연수인증기관을 모집한다. 인

증된 단체와 기관에서 스님이 교육을 받을 경우 종단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증기관 신청자격은 스님들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이며 연간 교육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인증신청서,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

등이며 인증기간은 인증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교육원은 오는 8월부터 구축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상설 운영한다. 스님들의 실무능력을 전문화하는 동시에 재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본지 7월3일자 2면 참조]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원로의원 천운 대종사의 빈소가 마련된 제22교구본사 대흥사 보현전을 찾아 평생 어린이포교와 군포교 등 대중교화에 헌신한 스님의 뜻을 기렸다. 대흥사=김형주 기자

평생 대중교화 헌신 ‘우리 시대의 보살’ 원로의원 천운 대종사 원적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상원(天雲尙遠) 대종사가 지난 14일 오전10시 광주 향림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64년, 세수 79세. 평생 어린이포교와 군포교 등 대중교화에 헌신한 천운대종사의 영결식은 18일 오전11시 대흥사 천불전 앞에서 엄수된다. 이어 낮 12시 대흥사 부도전 앞에서 다비식을 거행한다. <7월16일 현재> 빈소는 대흥사 보현전과 광주 향림사 불교회관에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총무부장 영담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해남 대흥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밖에도 강운대 광주광역시장 등 외부인사들의 조문도 줄을 이었다. 천운 대종사 문도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일체의 조화를 정중하게 사향했다.

천운대종사는 문도들에게 남긴 유훈에서 “문도들은 불조(佛祖)의 본분을 가슴에 새기고, 중생 속에서 정도를 성취하는 대승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종사는 “제방의 도반과 향림사 신도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세생생 보은할 것”이라면서 “문도들은 대흥사 교구를 전범과 보살행의 복전(福田)으로 가꾸어 주기 바란다”고 유촉했다. ▶ 관련기사 3면

입적 소식이 전해진 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스님)와 자유선진

당(대표 이회창)이 애도문을 발표하고 스님의 원적을 추도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은 “열악한 군포교 현장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천운대종사가 남긴 유훈이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가르침으로 영원히 남길 바란다”면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32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천운대종사는 1947년 지암스님을 은

사로 출가하고, 1947년 평창 월정사에서 사미계, 1958년 고창 선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한후 평생 대중교화와 수행정진에 전념했다. 천운대종사는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소임을 보았으며, 중앙총회의원, 비상총회의원, 광주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과 지역불교 증흥에 기여했다. 대종사는 지난 2001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4년에는 대중사 법계를 품수했다.

이성수·허정철 기자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원, 군포교 역량 강화한다

軍전법단 창립…자영스님 등 10명 지도법사 위촉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 불교 발전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일선 포교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스님들의 협업체가 구성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군 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식’을 갖고 군 전법단을 창립했다.

조계종 전법단 분야별 조직 구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 전법단 창립은 병

원 전법단, 경찰 전법단에 이은 3번째 창립으로, 이날 포교원은 자영·도윤·효강·백거·덕현·대해·지일·지건·탄웅·지선스님 등 군 포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스님 10명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군 전법단이 창립됨에 따라 그동안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원력을 세워 진행되어 온 군 포교 활동이 보다 체계화되고 군 포교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수능 마무리 전략

무료 공개특강

조계사·EBS·본지

7월23~25일 3차례

서울 조계사와 불교신문, EBS 등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2011학년도 수능마무리 전략 무료공개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반영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시정책을 반영해 EBS 대표강사 3명을 초청해 각 영역별로 마무리 전략을 듣은 뒤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역별 여름방학 학습전략, D-100 학습전략 및 EBSi 활용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특강은 윤혜정 EBS 언어영역 대표강사가 언어영역을, 심주석 EBS 수리영역 대표강사가 수리영역을, 윤연주 EBS 외국어영역 대표강사가 외국어영역을 각각 강의하게 된다. 동참비는 무료다.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은 “그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타가 인정하는 입시 명문인 EBS 교육방송 등과 함께 알차게 특강을 준비했다”면서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조계사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월 동안 수능기도를 봉행한다. 오는 30일부터 11월17일까지 실시되는 11월 수능기도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이자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 수험생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길 발원하는 의미에서 봉행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圓寂

曹溪宗 元老議員 天雲堂 尙遠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天雲堂 尙遠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54(2010)年 7月 14日(陰 6月 3日) 午前 10時 光州 香林寺 拈花室에서 法臘 64年, 歲壽 79歲로 圓寂하셨습니다.

천운당 상원대종사 추모일정

초재	7월 20일(음 6월 9일)	10시	대흥사
2재	7월 27일(음 6월 16일)	10시	향림사
3재	8월 3일(음 6월 23일)	10시	향림사
4재	8월 10일(음 7월 1일)	10시	향림사
5재	8월 17일(음 7월 8일)	10시	향림사
6재	8월 24일(음 7월 15일)	10시	향림사
7재	8월 31일(음 7월 22일)	10시	대흥사

■ 永訣日時：佛紀2554(2010)年 7月 18日(陰 6月 7日) 午前 11時

■ 永訣式場：頭輪山 大興寺

■ 茶 毘 場：頭輪山 大興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大興寺 ☎(061)534-5502

☎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天雲堂 尙遠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